

## CEO의 한 달

지난 4월 국제 행사장이나 세미나 연단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KISA 황중연 원장이 지난 5월에는 두 차례 시상식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해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온 KISA 내부 혁신활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수상으로 이어졌으며,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 기여한 공로도 이번엔 인정받았다. KISA의 대내외적인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 KISA, 우수혁신 기관상 수상

: 한국콘텐츠진흥대상도 수상

KISA 황중연 원장이 지난 5월말 우수혁신 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황 원장 취임 이후 '유비쿼터스 사회의 정보보호 프린티어'라는 비전 아래 추진됐던 KISA의 혁신활동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것으로, 이를 계기로 KISA에는 '대한민국 신뢰경영 우수기관'이라는 닉네임이 하나 더 붙게 됐다.

한편, 황 원장은 지난 30일에도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학문적 진흥과 기술적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콘텐츠학회로부터 '한국콘텐츠진흥대상'을 받았다.



### “정보보호, IT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강연

지난달 27일 황 원장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에서 석·박사 학위과정 대학원생을 상대로 '디지털 사회의 환경변화와 정보보호 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정보보호 정책의 발전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IT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정보보호라는 것이 IT 분야 관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 “정보보호 인력, 미래 밝다”

: 목포대학교 강연

한편, 목포대학교에서는 정보보호 전공 학부생 및 대학

원생을 대상으로 '융합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대책'을 주제로 강연이 이뤄졌다. 이번 강연은 지난 2007년 10월 목포대학교와 정보보호 분야 연구협력 및 인력양성 협력을 위한 MOU 체결 후 인력양성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정보보호 인력 수급현황, 그리고 전망분야 등이 소개됐다.